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 TV 토론회

"F1·J프로젝트 정부 지원 내가 이끌겠다"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 3명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TV토론회가 14일 KBC광주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들은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왼쪽부터 김대식·정훈·김문일 예비후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대식 "한중일 관광코스 개발 무안공항 활성화"

정 훈 "귀농자·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설립할 터"

김문일 "동서화합 위해 동부권에 제2 청사 건립"

한나라당 불모지인 전남에서 전남지사 후보들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후보 경선 TV토론회를 갖고 집권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대식 전 민주평통사무처장, 김문일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정훈 국민통합운동본부 총재 등 3명의 후보는 14일 오전 KBC광주방송 공개홀에서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이라며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여당 지원 내가 적임자=김문일 후보는 "호남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홀대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나라당에도 호남에 관심과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도민들은 '물질'보다는 '신뢰'를 원하고 있고, 진실성을 가지고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후보는 "F1 대회는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많지만, 성패를 따지기 전에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대회를 통해 전남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건의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훈 후보는 "전남의 농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렵다. 농촌이 발전하려면 농민이 있어야 하지만 모두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며 "정부와 조율해 귀농자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보건·의료·농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 해결 방안=김대식 후보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J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전남을 관광허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중국·일본을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관광코스 개발로 무안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천혜의 자연조건은 전남이 중국 관광객 유치의 전초기지로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후퇴는 없다. 나주혁신도시 차질 없는 진행 등 노무현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정략적인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문일 후보는 무안공항과 한중 산단 활성화를 강조하고, 동서화합을 위해 동부권 제2청사 건립을 제시했다. 그는 "동부권에 도청 제2청사를 만들어 여수·순천·광양을 묶고, 무안과 목포를 묶은 서부권, 나주혁신도시 등 3곳을 전남 트라이앵글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무안공항과 한중산단을 활성화시켜 한국과 중국, 무안을 트라이앵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 강 사업은 운하사업이 아닌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차원이 목적"이라며 "영산강 사업은 국가적 사업인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도민들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훈 후보는 농촌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고령화사회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면서 "귀농정책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으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마다 귀농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육과 보건·기술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또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호남인의 염원임에 따라 조기완공에 힘을 실어야 한다"면서 "조기완공과 더불어 무안공항 경유를 통해 무안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체감온도 많이 변했다=김대식 후보는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민생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낸 위대한 도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이 노력하면 도민들은 반드시 협조해 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문일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토론회 개최 자체가 대단한 정치적 발전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격려해주는 지역민이 많아 호남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훈 후보는 "명함을 돌리고 있으면 '용감하다'고 말하는 도민들이 많다. 그러나 도민을 원망하기에 앞서 당원들의 패배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하고, 그럴 때 도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다"고 내부에서의 의식 변화를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야권연대 변죽만 울리나

오늘 시한… 민주-민노당 호남 연합공천 난항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합의

6·2지방선거 야권연대 합의시한인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 4당은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는 14일 오후 문래동 민노당사에서 선거연대 논의를 속개,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안만 잠정 합의했을 뿐 나머지 쟁점 협상에 있어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수도권 기초단체장 공천배분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서울 성동 광진과 경기 하남 등 3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이 11곳의 수도권 기초단체에서 무(無) 공천키로 약속한 기존 합의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남에서의 선거연대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호남 연합공천에 부정적이나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는 호남도 연합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협상 대표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협상에서 "최고위원직을 걸고 호남 기초단체장 2곳을 다른 당에 양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도권 지방의원 공천 배분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간 문제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연합공천은 최소화하고 기초의원은 자율경쟁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야당은 "연합공천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파별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전국적인 연대 협상은 시한을 넘기며 사실상 결렬되고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후보단일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 관계자는 "호남 문제 등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심한 것 같다"며 "협상이 대단히 어려운 고비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오후 "민주당 김해시 의원 공천신청을 해 탈락한 김희성 김해시 의원을 국민참여당에 입당시켰고, 국참당의 김해시의원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국참당이 말하는 야권연대며 후보단일화인가"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심 관철 위해…" "무소속 출마 위해…"

주승용-이석형 전남지사 경선 무산후 엇갈린 행보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뛰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주승용 의원의 경선 무산 이후 향후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주 의원은 당에 재심을 요청한 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이 전 군수는 당의 재심 수용 여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등 향후 진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재심위원회 회의에 출석, 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경선 무산 결정에 부당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이날 재심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분하며 도민에게는 죄송하다"며 "내가 특정 계보가 아니었다면 (당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준영 지사 요구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받아주고, 우리 요구는 박준영 지사가 양해해 주지 않는다고 안 받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에 여론조사 시 재질문하지 말 것과 행안부 경력증명서상 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미경 공심위원장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물어서 '재질문 금지'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등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박준영 지사가 반대한다며 안 된다고 했다"며 이미경 위원장이 가등록을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등록 말은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1일 오후 이석형 후보와 후보단일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는데 한 최고위원이 전화로 그러면 박준영 지사 측이 더욱 완강하게 (추가 등록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등록 후에 기자회견을 하라고 해서 연기했다"며 "그 최고위원은 어차피 추가 등록을 허용할 것처럼 이야기했으며 나도 설마 전남지사 경선을 무산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고위원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행보와 달리 이석형 전 군수는 측근 등 주변 인사들을 만나 무소속 출마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군수의 한 측근은 "재심위와 최고위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부동산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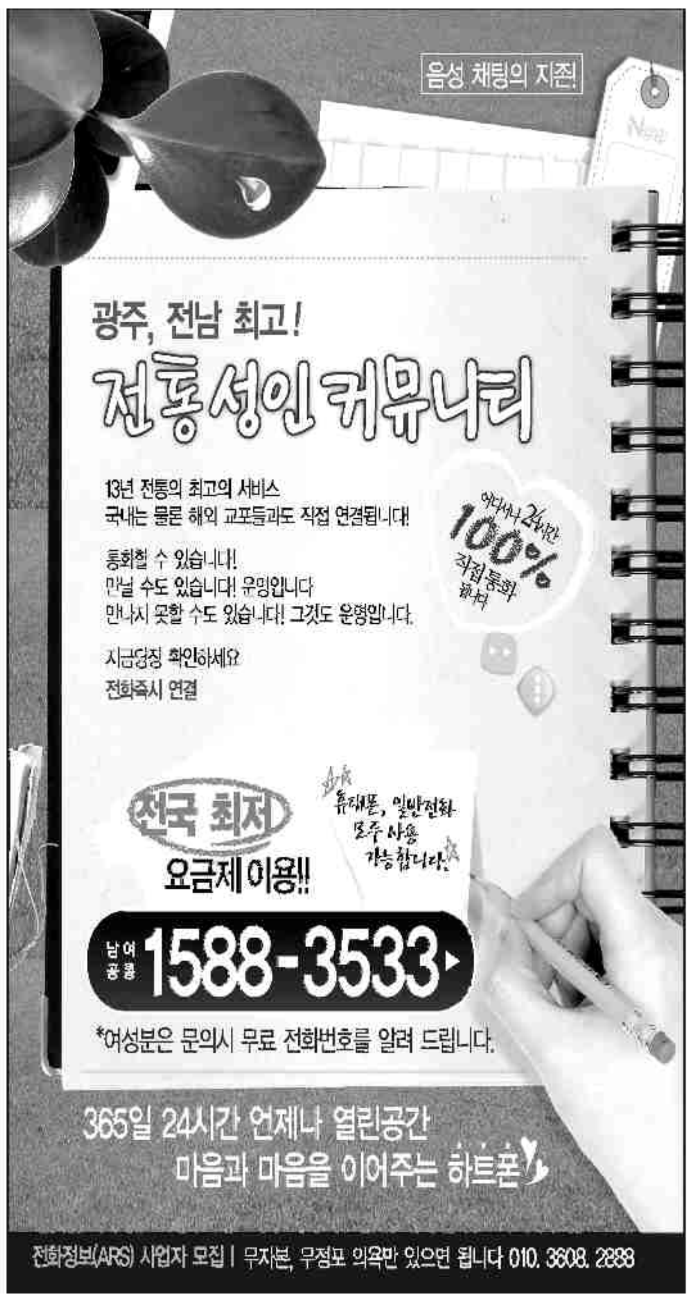
구 합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연산동 - 요기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벽진동 - 창고용지/500평정도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접
◉중흥동 - 200평/대로접(100%대출가)
상담후결정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접(100%대출가)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접(100%대출가)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대로접(100%대출가)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세하동 - 700평/50만원(평당)/도로접
◉광산구 신용동 - 1500평/50만원 도로접(물류창고 적합)
◉만평 풍암지구 수완지구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농성동 641-5 서구청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